

## 서울의 인쇄산업의 인력양성 방안

### 서울시 인쇄산업의 특성과 현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부문의 업종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 인쇄산업은 2001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한 10개 특화품목 중 서울시 특화산업으로 선정되었음.
  - 서울시는 제1차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안에 인쇄업을 지연산업으로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하였음.
- 인쇄는 도시형 산업으로 전체 사업체 중 50.58%의 사업체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고 종사자수도 57.90%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체 중 64.02%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으며 종사자수는 전체의 73.59%를 나타냄<[표 1] 참조>.
- 생산 규모는 전체의 5조3,607억원 중 절반이 넘는 54.0%(2조8,947억원)를 서울에서 생산하고 있음. 또한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를 포함하면 전체 인쇄시장의 84.7%(4조5,405억원)를 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서울지역은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 이어 인쇄·출판업의 제조생산액이 20.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지역 특화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울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인쇄업체를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에 가장 집적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마포구, 영등포구 그리고 강남구에 집적되어 있음.

[표 1] 지역별 인쇄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지역	사업체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지역	사업체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서울	11,212	50.58%	82,808	57.90%	강원	305	1.38%	1,391	0.97%
부산	1,433	6.47%	7,177	5.02%	충북	410	1.85%	1,995	1.39%
대구	1,218	5.50%	5,121	3.58%	충남	402	1.81%	2,021	1.41%
인천	553	2.49%	2,659	1.86%	전북	442	1.99%	1,814	1.27%
광주	573	2.59%	3,006	2.10%	전남	342	1.54%	1,136	0.79%
대전	599	2.70%	2,952	2.06%	경북	533	2.40%	3,141	2.20%
울산	229	1.03%	945	0.66%	경남	798	3.60%	3,557	2.49%
경기	2,979	13.44%	22,428	15.68%	제주	137	0.62%	860	0.60%

<자료 : 통계청, 200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표 2] 자치구별 인쇄업체 현황

지역	5인 미만	5-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서울특별시	7,137	3,905	145	25	11,212
종로구	433	233	20	7	693
중 구	4,361	1,711	18	8	6,098
용산구	145	175	8	1	329
성동구	140	243	12	0	395
광진구	70	44	0	0	114
동대문구	92	58	1	0	151
중랑구	42	17	0	0	59
성북구	64	30	1	0	95
강북구	22	15	0	0	37
도봉구	16	9	0	0	25
노원구	20	11	1	0	32
은평구	43	23	1	0	67
서대문구	94	74	1	0	169
마포구	333	303	11	3	650
양천구	49	36	3	0	88
강서구	52	71	1	0	124
구로구	78	50	2	1	131
금천구	83	88	14	2	187
영등포구	361	151	12	1	525
동작구	39	37	2	1	79
관악구	70	33	1	1	105
서초구	170	134	15	0	319
강남구	225	277	14	0	516
송파구	83	62	5	0	150
강동구	52	20	2	0	74

<자료 : 통계청, 200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인쇄업계 인력구조 현황

- 현재 인쇄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기술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기능 인력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인쇄업계의 인력난 현상은 단순 기능인력과 다기능 인력 모두 부족한 실정임.
- 인쇄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수급이 뒷받침돼야 할 것임.
  - 최근 인쇄업계의 수는 IMF 전과 큰 변화가 없으나 상용근로자수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03년 인쇄업의 상용근로자수는 82,808명으로 IMF 이전인 97년 87,665명보다 4,857명이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물론 생산라인의 자동화추세로 상용근로자수의 감소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업계의 현실을 보면 인력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 서울시 인쇄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구분	연도	사업체수	증감	종사자수	증감
IMF 이전	1996	11,005		91,963	
	1997	11,223	218개사 증가	87,665	4,298명 감소
IMF 이후	1998	10,355	868개사 감소	73,427	14,238명 감소
	1999	10,470	115개사 증가	77,388	3,961명 증가
	2000	11,093	623개사 증가	80,874	3,486명 증가
	2001	11,584	491개사 증가	84,973	4,099명 증가
	2002	11,015	569개사 감소	85,506	533명 증가
	2003	11,212	197개사 증가	82,808	2,698명 감소

<자료 : 통계청, 200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인쇄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더욱 심각한 양상

을 보임.

- 전체 부족인원의 89.8%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부족률은 7.0%로 관리직(0.61%), 사무직(0.87%), 단순 노무직(1.63%)에 비해 월등히 높아 생산직의 인력부족 현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표 4] 참조>
- 직종별로는 인쇄기 조작원이 관련 직종 부족인원의 40.0%에 해당하는 1,04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원(416명), 인쇄조판원 및 식각원(275명), 체본원 및 관련근로자(271명), 체본용 기계조작원(250명) 등임.
- 인쇄업계는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많은 숙련기술을 요하는 인쇄기 조작원 등 장치조작원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인쇄업계 인력구조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부족인원은 많게는 대략 5,000여명에 이르며 최소 필요인력은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표 4] 2002년도 인쇄업의 인력 부족률 현황

구분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인쇄업	8,624	53	0.61	7,290	64	0.87	17,697	1,238	7.00	1,436	23	1.63
1규모 (5~9인)	2,591	31	1.17	2,072	0	0	3,231	243	7.55	31	0	0
2규모 (10~29인)	3,570	22	0.61	2,589	44	1.70	6,986	408	5.84	463	11	2.38
3규모 (30~99인)	1,430	0	0	1,454	12	0.85	3,593	100	2.77	568	12	2.19
4규모 (100~299인)	948	0	0	896	7	0.79	2,834	472	16.65	316	0	0
5규모 (300~499인)	84	0	0	276	0	0	1,051	15	1.45	59	0	0

※노동부(단위 : 명, %) 5인이상 사업체 기준

[표 5] 2002년도 직종별 인력부족률 현황

직종별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인쇄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원	인쇄기 조작원	16,639	1,049	6.31
	제본용 기계조작원	2,649	250	9.45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원	11,013	416	3.78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식자원 및 관련근로자	1,120	88	7.82
	연판제조원 및 전기제판원	1,269	16	1.26
	인쇄조판원 및 식각원	5,129	275	5.37
	사진처리 및 관련근로자	1,493	31	2.04
	제본원 및 관련근로자	3,249	271	8.34
	실크인쇄, 목판 및 직물 인쇄원	4,255	230	5.41

※노동부(단위 : 명, %)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 인쇄업 인력양성 실태 및 현황

- 국내 인쇄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원은 2개 대학교에서 연간 300여명, 4개 전문대학에서 300여명, 2개 고등학교에서 60여명, 5개 직업전문학교에서 200여명 등 총 860여명 등임.
- 그러나 배출인력의 대부분이 상위 교육기관으로 편입하거나 편집디자인, 웹디자인 등 유사업종이나 프리프레스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배출인원 중 생산인력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 인쇄 기능인력 양성화 방안

- 기계장비의 자동화와 유연적이고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 생산방식은 다기능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기존 기능인력을 다기능 인력으로 양성함으로써 노동인력의 유연성에 대처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인쇄산업의 현실은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부재하고

- 인력양성도 단순 기능인력 양성에 치우치고 있어 현장과 교육기관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 학계, 직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기존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임.
  - 결국 인쇄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선행돼야 할 것은 효율적인 산·학연대가 필요함.
  - 인쇄업계, 학계, 직업훈련기관, 기계메이커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토대로 필요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방향이 모색해야함.
  - 또한 인쇄산업 숙련 및 직업기준 개발, 숙련 향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신규 입직자 프로그램개발, 경력 및 직업정보 시스템구축 등의 네트워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재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기능인력양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능인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민간주도로 회원사가 신규기능인을 채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기능인력 채용을 장려하고 있고, 서울시내 공업고등학교 인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해외연수를 통해 인쇄산업에 종사를 유도하고 있음.
  - 인쇄관련 교육기관 교수, 교사들로 구성된 인쇄교육발전협의회를 조직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위주 교육을 위한 산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쇄업 전용 온라인 구인·구직시스템(Job Print)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취업알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재직자의 다기능 인력화를 위해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을 준비 중인 서울정보기능대학에 회원사로 참여할 예정임.

## 서울시와 자치구(중구)의 인력양성에 관한 정책방향

- 서울시는 인쇄업을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사업으로 서울인쇄센터를 건립하였고 센터의 행사 및 예산(2005년 2억)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능공 양성에 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4곳의 시립직업전문학교는 인쇄업(프레스)에 관한 훈련과정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 더욱이 인쇄업이 밀집되어 있는 중구는 관내 인쇄업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
  - 지역특성화에 맞고 민간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이 가장 효율적임. 서울인쇄조합은 인력양성이라는 비전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중구청은 인쇄조합, 인쇄고등학교 및 전문학교(신구대학),시립직업전문학교와 협의하여 인력양성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서울인쇄조합은 중소기업청의 청년패키지사업을 활용하고 인천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여 신규기능공 양성을 시도하였으나 중구청인 요구하는 의무집합교육에 관한 행정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양성사업이 무산되었음.
  - 청년패키지 사업은 구인·구직자 측면에서 효율적인 취업알선시스템으로 평가되므로 서울시가 인쇄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공양성을 시도한다면 청년실업해소와 인쇄업 인력난해소의 이중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윤형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younh@sdi.re.kr